



### UN OHCHR 소식

#### 유엔 인권 및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보고서: 코로나19 감염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다.



마르코스 오레야나(Marcos Orellana) 유엔 인권 및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가 기존의 취약성, 불평 등, 차별의 패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환경 파괴, 기후변화, 토지이용의 변화가 코로나19 발생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레야나 특별보고관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전임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주제별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를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유해물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노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인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생명권, 신체보전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같은 여러 권리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금과 같은 재앙적인 감염병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모두의 실패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각 국 정부 대표가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예방조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과 같은 우수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외된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수많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각 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도록 방치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감염병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는 의사, 과학자, 활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비판했다.

이번 감염병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어느 한 국가의 느슨한 방역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전세계적 차원의 위기 관리, 다자주의, 강력한 국제적 협력,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exposure.aspx>

첨부파일: 제75차 유엔총회 제출 유엔 인권 및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보고서

## 유럽평의회 소식

###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맞아 공동선언 발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2020년 10월10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시 표명하고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사형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만 사형이 집행됨을 언급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20개 국가는 여전히 많은 숫자라고 지적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2020년 12월 유엔 총회 제 75차 회기에서 사형제 집행의 유예에 관한 결의안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사형제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2020년에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가장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에게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법제도가 필요시 통·번역 서비스를 포함,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동선언은 범인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제도는 범죄억제 효과가 없고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무분별한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관련 의정서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선택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조속히 가입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여전히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국가인 벨로루시가 대다수 유럽국가들을 따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형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은 유럽평의회 참관국들이 사형제 폐지절차를 어렵게 하는 요소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https://www.coe.int/en/web/portal/-/world-day-against-the-death-penalty-10-october-2020-joint-declaration-by-eu-high-representative-and-council-of-europe-secretary-general>

## 국제앰네스티 소식

### 앰네스티 보고서: 영국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10월 4일 위기대응팀의 조사 이후 충격적으로 무책임한 영국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만명의 노인들이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영국정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다.”라는 제목의 50페이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초기단계에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사실상 방임되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2일부터 6월12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국의 요양시설에서 28,186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8,500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앰네스티의 조사결과 요양시설의 직원들은 감염병 대응 초기 6주 기간 동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으며, 충분한 수량의 개인보호장비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검사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코로나19 2차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요양시설 사태에 대한 독립적 공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조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임시단계에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영국정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 요양시설의 의료기록에 보관된 심폐소생술 불필요(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양식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시행되지 않도록 함
- 요양시설 거주자들이 국가의료보건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요양시설 거주자, 직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 실시
- 개인 위험 평가를 통해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양시설 방문 지침을 도입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10/uk-older-people-in-care-homes-abandoned-to-die-amid-government-failures-during-covid-19-pandemic/#:~:text=Kate%20Allen%2C%20Director%20of%20Amnesty%20International%20UK%2C%20said%3A,other%20residents%20and%20to%20staff>

## 한국 인권위 소식

###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결과 EU등 국제기구에 공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전략 및 행동계획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및 도전사항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 국제기구, 인권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80여 명이 참가했고 온라인 회의는 1,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콘퍼런스의 가시적 결과물로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평등법에 대한 구두성명이 도출되었다. 구두성명은 혐오와 차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혐오와 차별 철폐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및 평등법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콘퍼런스 개최 전 UN, EU, APF 및 주한 공관 등에 구두성명에 대한 의견 조회를 통해 평등법 제정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요 국가의 평등법 제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는 MBC, 한국경제, 뉴시스 등 13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콘퍼런스에 참여한 주요 인사의 언론인터뷰를 지원하여 전문성 활용을 도모하였다. 이문 길모어(Eamon Gilmore) EU 인권특별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및 종교부문 관련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고 닉 메타(Nik Mehta) 주한 영국 부대사는 인권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평등법과 혐오차별과 관련된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 성과를 UN, APF, EU 대표부 등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 2020년 노인인권회의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하반기 회의) 개최 안내

- 일시: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5시20분
- 장소: 미정
- 회의방식: 웨비나
- 주제: 일할 권리 및 노동시장 접근, 교육·연수·평생교육 및 역량강화 규범요소, 사회보장 최저선 등 사회보호, 사회안전 규범요소, 노인인권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술보고서 논의
- 담당자: 국제인권과 오숙현(02-2125-9883)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